



장윤미 연구원

요약

최근 각국의 정책지원 등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이에 해외 보험회사는 파라메트릭 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한편,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관협력 방식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응한 해외 보험회사의 참여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는 최근 대두되는 환경 이슈와 에너지안보 등의 요인으로 각국의 정책지원이 확대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¹⁾
 - 재생에너지란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를 뜻하며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메스, 조력, 지열 등이 있음
 -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 확대,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자체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증가분은 전년 대비 1/3 정도 많은 440GW 이상이며, 이는 독일과 스페인의 발전용량 총량보다 많은 수치임
-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투자비용이 높은 반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기술적·물리적·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개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정치리스크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²⁾
 - 재생에너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전투자 비용이 높은 반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는데, 이는 날씨위험에 따른 전력생산량 변동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생에너지 장치 손실 등의 이유로 발생함
 -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신기술 사용의 불확실성, 건설과정에서의 장비 오작동이나 공급망 이슈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각종 이행리스크 등이 발생함
 -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높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규제변화와 같은 정치리스크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위험도가 크고 자본부족 문제가 발생함

1) IEA(2023. 6),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 Outlook for 2023 and 2024", p. 8

2) Swiss Re(2023. 7. 24), "Three ways insurers can support the renewable energy transition" 외 언론기사를 종합하여 작성함

- 이에 글로벌 보험회사는 파라메트릭 보험을 포함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보험솔루션을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위험수준을 완화함³⁾
 - Munich Re는 파라메트릭보험 등과 같은 기후위험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잠재적 위험을 끼치는 홍수, 폭풍, 우박 등의 피해를 보상함
 - Swiss Re는 건설부터 이행보증에 이르기까지 재생에너지 사업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험을 보장하며, Munich Re는 태양광 패널 이상을 식별하는 기기의 오작동을 보증하는 상품을 최근 출시한 바 있음
 - AXA와 Chubb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정치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Zurich를 비롯한 기타 해외 보험회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등의 상품을 제공함

- 또한 글로벌 보험회사는 특히 개도국에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다양한 공적개발기관 등과 협업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민간자본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함⁴⁾
 -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적개발 재원과 민간투자 재원이 전략적으로 조합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d)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Allianz Global Investors는 혼합금융 방식으로 네덜란드개발은행(FMO) 등의 기관과 협업하여 개도국이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함
 - Prudential은 개도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선진국과 다자간은행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JETPs(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참여하여 베트남의 탄소중립을 위한 자금을 제공함

- 한편 보험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시 기술변화에 따른 전문성 확보, 적정 데이터 수집, 사업 실효성 파악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⁵⁾
 - 재생에너지 사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위험인수 심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 개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정책의 불투명성,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보험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자문역할을 맡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 복잡한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차발생(Time lags) 등의 문제로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음

3) ETEnergyWorld(2023. 3. 29), "Why insurance in renewable energy sector will see a massive uptick in 2023"; Swiss Re(2020), "Your partner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p. 2; Reinsurance News(2023. 6. 5), "Munich Re backs raicoon's solar performance guarantee" 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함
4) Reuters(2023. 11. 28), "Allianz and Dutch development bank back \$1.1bn sustainable loans fund"; AsianInvestor(2023. 3. 27), "Prudential to focus on two fronts for Asia EM decarbonisation" 외 혼합금융 관련 언론기사를 종합하여 작성함
5) OECD(2019. 1), "Blended finance evaluation: Governance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